

# 미 해군, 소말리아 해적퇴치 위한 경계 강화

## 순찰 강화 및 소말리아 해안경비대 설립지원

미국 해군이 소말리아 및 동 아프리카 해상지역 해적행위 방지를 위해 해상경계를 강화키로 한 것으로 보도됐다.

이와함께 미 해군은 소말리아 해안을 경비하며 해적행위 소탕을 위한 해상순찰을 강화하는 한편, 소말리아 해안경비대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동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은 인도네시아 인근 말라카 해협 다음으로 악명이 높은 해적 출몰이 잦은 해역이다.

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해사기구는 지난달 이 지역에 대해 각국 정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해적행위 방지활동을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을 촉

구했다.

최근에는 한국 참치잡이 선박이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서 무장한 해적에 의해 나포된적이 있다.

한편, 이같은 보도에 대해 미 해군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, 미 국무부 역시 공식발표를 하지 않은 채, 소말리아 과도정부와 외교적 협의를 하고 있다고만 밝혔다.

전문가들은 군사작전은 통상적으로 공식발표 없이 비밀스럽게 진행된다고 강조, 미국이 이 지역의 안보를 위해 일정한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.

# 미국, LNG 국적선 및 터미널 우선 확보추진

## 미국 선원 고용과 안보 문제를 동시에 해결

미국이 자국적을 갖고 있는 LNG 선박에 대해서만 입항을 허용하는 LNG 터미널을 우선적으로 건설을 허가하는 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미 상원 및 하원 공동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, 미국 선원의 고용과 안보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.

미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따라 LNG 시장이 앞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해외에서 LNG를 미국으로 수입하는 에너지 회사들이 미 국적 해기사가 승선한 미 국적 LNG 선박을 이용할 경우, 터미널 건설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을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터미널 건설 승인절차는 1년 정도 소요되는데, 현재 50여 개의 LNG 터미널 건설에 대한 신청이 이루어져 검토되고 있다.

미 의회가 동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, 미국은 상당한 LNG 국적선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.